

# 1회 충전 313km 주행...벤츠, 전기 SUV '더 뉴 EQB' 출시

### 넉넉한 실내·적재공간...사륜구동 시스템 주행 성능·안정성 장점 급속 충전시 배터리 잔량 80%까지 약 30분...가격은 7700만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패밀리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더 뉴 EQB 300 4MATIC AMG 라인'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더 뉴 EQB는 메르세데스-EQ가 EQA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콤팩트 SUV로, 지난해 4월 중국에서 개최된 '2021 오토 상하이' (Auto Shanghai 2021)에서 세계 최초 공개됐다.

국내에 출시되는 '더 뉴 EQB 300 4MATIC AMG 라인'은 여유로운 실내 및 적재공간을 갖춘 것은 물론, 4MATIC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탁월한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발휘한다고 벤츠는 전했다.

우선 더 뉴 EQB는 메르세데스-EQ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인 '진보적인 럭셔리' (Progressive Luxury)가 적용됐다.

더 뉴 EQB는 2729mm의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패밀리 SUV로도 손색없는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며, 실내 디지털 요소와 조명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공간 분위기를 나타낸다.

5인승 모델의 경우 2열 좌석 헤드룸과 레그룸이 각각 979mm, 87mm, 최대 1710ℓ의 적재공간을 확보했다. 2열 좌석은 6대 4 비율로 분할 폴딩이 가능하며, 앞뒤로 140mm 가량 조절할 수 있어 적재 공간을 확장하거나, 뒷좌석 탑승객에게 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등 상황에 따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7인승 모델은 2개의 개별 좌석으로 구성된 3열 시트가 추가된다. 3열 좌석은 신장 165cm까지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으며,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이 가능하다.

더 뉴 EQB의 실내에는 대시보드, 도어트림, 센터 콘솔 등 곳곳에 사용한 알루미늄 소재와 대시보드 및 송풍구 등의 화려한 실내 조명으로 전차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2개의 10.25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와이드 스크린 콕핏과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해 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확인과 직관적인 차량 기능 조작이 가능하다.

이밖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66.5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메르세데스-벤츠의 지능형 열 관리 시스템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313km 주행이 가능하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 최대 100kW 출력으로, 완속 충전기는 최대 9.6kW의 출력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급속 충전 시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약 30분이 소요된다.

더 뉴 EQB 300 4MATIC AMG 라인의 앞축과 뒤축에는 각각 모터가 탑재, 최고 출력 168kW와 최대 토크 390Nm를 발휘한다. 프론트 액셀에는 비



메르세데스-벤츠가 '더 뉴 EQB 300 4MATIC AMG 라인'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더 뉴 EQB는 여유로운 실내와 적재공간을 갖췄으며, 4MATIC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주행성능과 안정성을 발휘한다. 또 패밀리 SUV로 부족함이 없는 다양한 안전·편의사양이 탑재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동기식 모터가, 리어 액셀에는 영구 자석 동기식 모터가 탑재된 사륜구동 시스템은 주행 상황에 따라 앞뒤 차축에 위치한 일렉트릭 유닛(electric unit)을 통해 초당 100회에 걸쳐 가변적으로 토크를 분배하며,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도 최상의 접지력과 주행 안정성을 제공한다. 더 뉴 EQB 300 4MATIC AMG 라인에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과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을 탑재했다. 기본으로 탑재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에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자동 속도 조절, 제동 및 출발을 지원하는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과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는 '액티브 속도 제한 어시스트', 하차 경고 기능이 포함된 '액티브 사각지대 어시스트' 등이 포함됐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통합 패키지, 차량 내부부의 초미세 먼지 농도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내기 순

환모드를 통해 공기 유입을 차단해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공기 청정 패키지, 64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엠비엔트 라이트, 무선 충전 시스템 등도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더 뉴 EQB 300 4MATIC AMG 라인의 부가세 포함 가격은 7700만원이며, 전국 62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과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인 '메르세데스-벤츠 스토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기아 광주서 생산한 '봉고 III EV 냉동탑차' 출시

### 저상형과 표준형 2개 모델

### 1회 충전 시 177km 주행

### 정차 시에도 냉동기 가동 가능

기아는 '봉고 III EV 냉동탑차'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차량으로, 지난 2020년 1월 출시한 봉고 III EV 초장축 캠핑 기반의 특장 모델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급증한 시장 수요와 고객의 목소리 및 친환경 정부 정책을 반영하면서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의 방향성을 담아 개발된 차량이라고 기아는 전했다.

국내 온라인 식품 시장규모는 2019년 약 26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58조5000억원으로 2배 넘게 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냉장·냉동탑차 시장도 같은 기간 1만7300대에서 2만1200대로 22% 증가했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차량에 장착된 고전압배터리를 활용해 냉동기를 가동하도록 개발, 보조배터리를 추가 장착해 판매중인 외부 특장업체 차량 대비 350kg 향상된 1000kg의 적재중량을 제공한다. 여기에 별도의 보조배터리 충전과정이 필요치 않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또 기아는 봉고 III EV 냉동탑차 출시 전 지역 냉장·냉동 물류 서비스 업체 및 운전자 등의 협조를 받아 사용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 단계에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상품성을 향상시켰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냉동기 미가동 상태 기준으로 완충 시 177km를 주행할 수 있다.

냉동기 효율을 극대화해 냉동기를 가동하면서도



15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됐으며, 전차의 장점을 살려 5년 이상 공회전이 제한되는 디젤차와 달리 정차 시에도 냉동기 지속 가동이 가능해 우수한 운용성을 확보했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기존 봉고 III EV의 편의사양을 그대로 계승한 것도 특징이다.

봉고 III EV 전용 사양인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패들시프트 ▲버튼시동 스마트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이 기본으로 장착됐다.

또 ▲운전석 통풍·열선시트 ▲풀오도 에어컨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등 고객 선호 사양 기본 적용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운전을 돕는다.

동절기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 역시 모든 모델에 기본 탑재해 추운 겨울철에도 충전 속도 저하를 방지하며,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

의 경고(DAW) 등을 전 모델 기본 사양으로 운영하는 등 안전사양도 높였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저상형과 표준형 2개 모델로 출시되며, 각 모델의 가격은 ▲저상형 5984만원 ▲표준형 5995만원이다.

차량 구매 시 정부 소형화물 전기차 보조금 184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 받을 수 있어 경제성이 높다는 평가다.

기아 관계자는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개인과 소상공인, 대형 업체의 니즈를 두루 반영한 상품성과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친환경 배송 맞춤형 차량"이라며 "봉고 III EV 냉동탑차로 친환경 유통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내 냉장·냉동 물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극도의 공기역학과 매끈함”

### 현대차 아이오닉6 디자인

### 해외 언론·소비자 호평 줄이어

현대자동차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이자 첫 세단형 전기차인 아이오닉6(사진)의 디자인에 대해 해외 언론매체와 소비자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4일 현대차그룹 미디어채널인 HMG저널에 따르면 아이오닉6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바탕으로 현대차의 전기 콘셉트카 '프로페시'의 디자인이 대거 적용됐다.

특히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유선형 디자인을 뜻하는 '일렉트릭라이드 스트림라이너' 적용으로 외관과 기능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먼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트'는 아이오닉6의 디자인과 관련해 "앞머리는 한껏 움크려 있고, 지붕도 평평하다"며 "그 결과 양산차 중 최고 수준의 공기역학 성능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는 "현대차는 프로페시 콘셉트카의 매끈한 디자인으로 미래를 예언했다"며 "그 콘셉트카를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6은 복고적인 모습과 미래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호평했다.

미국의 온라인 자동차 매체 '카버즈'도 "현대차는 아이오닉6을 통해 디자인의 새로운 흐름을

찾은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해외 언론매체들은 전기차의 특성상 차체 아래쪽에 배터리가 탑재되는데도 아이오닉6가 유선형 디자인으로 전면부를 낮게 해 공기저항은 낮은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 누에고치형 콘셉트로 안락한 실내공간을 제공하는 점도 이들 매체의 호평을 끌었다.

영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 '탑이어'는 "유선형 디자인은 미적으로 훌륭하지만, 제작이 어렵다"며 "하지만 아이오닉6의 디자인은 유선형을 잘 유지하면서 뛰어난 공기저항 계수까지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선형 모양은 한때 공상과학 소설의 한 분야였지만 (아이오닉6가 보여준) 극도의 공기역학적 매끈함은 전기차의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도 "탑승자들은 실내에서 거실에 있는 것 같은 안전함을 느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해외 소비자들도 아이오닉6의 디자인에 높은 점수를 줬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 등의 평가란에는 "아이오닉6은 테슬라 모델 3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품질 면에서도 테슬라를 넘어설 것", "미래지향적, 레트로, 공기역학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 하나로 결합됐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연합뉴스



## 기아 '더 뉴 셀토스' 디자인 공개

### 도심형 스포츠유틸리티차

### 혁신적이면서 모던한 이미지 구현

기아가 최근 도심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뉴 셀토스'의 내·외장 이미지를 공개했다.

더 뉴 셀토스는 2019년 7월 출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셀토스의 상품성 개선 모델로, 출시 직후부터 기아를 대표하는 소형 SUV다.

더 뉴 셀토스는 기아의 신규 디자인 철학인 오픈 및 유니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의 다섯 가지 속성 중 '미래를 향한 혁신적 시도'에서 영감을 받은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인 외장 디자인과 '인간의 삶을 위한 기술'이 반영됐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더 뉴 셀토스 외장 디자인은 기존 셀토스의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한 스타일을 계승하면서도 미래적 감성이 돋보이는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전면부에 웅장한 느낌의 메쉬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하고 이를 가로지르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과 와이드한 형상의 LED프로젝션을 통해 한층 혁신적이면서 모던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전면부 LED 주간주행등(DRL)의 세로 조형과 수직으로 연계된 포그 램프는 더 뉴 셀토스의 차별화된 존재감을 보여주며 라디에이터 그릴과 조화를 이룬 심플한 스키드플레이트는 깔끔한 인상을 준다.

측면은 균형잡힌 실루엣과 불륨감 있는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적인 감성을 담고 18인치 전방가공 타입 휠을 탑재해 단단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후면부에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스타맵 시그니

처 라이팅을 가로로 길게 적용하고, 동일한 콘셉트의 백업 램프와 리어 리플렉터를 적용해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실내에는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을 연결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배치해 시인성을 높이고, 통합형 컨트롤러와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 등 최첨단 편의사양을 탑재했다. 한편 기아는 다음달 15일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서 더 뉴 셀토스 실차를 최초로 전시하고 선보일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가상인간 '루시' 자동차 마케터 변신

### 쌍용차 토레스 소개

롯데홈쇼핑이 개발한 가상인간 '루시'가 자동차 마케터로 변신해 쌍용차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토레스를 소개한다.

쌍용차는 5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토레스 신차발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6월 베리 뉴 티볼리 이후 3년 만에 하는 오프라인 신차발표회다.

쇼스트와 광고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루시가 토레스를 소개하고, 문일환 쌍용차 엑스테리어 디자인팀장이 디자인 철학 'Powered by Toughness' (강인함에 의해 추진되는)를 바탕으로 탄생한 토레스의 디자인을 설명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신차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TV와 쌍용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5일 오전 10시에 신차발표회를 시청할 수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신차를 발표해 아쉬움이 많았다"며 "3년 만에 하는 오프라인 신차발표회를 통해 토레스의 다양한 특징을 생생하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